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6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한정 승인 제도의 절차와 과세 논란

지문 평가

(가)는 상속 방식 중 하나인 한정 승인 제도의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글이라면, (나)는 그로 인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 글이다. (나)의 밀도가 낮은 편이지만, 한정 승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법 - 한정 승인 제도

상속, 단순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채권자, 고유 재산, 상속인의 채권자, 한정 승인 심판 청구, 상속 개시, 가정 법원, 민사 법원, 유보부 판결

(나) 사회 - 법 -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취득세,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 담세력, 2006년 헌법 재판소, 평등 원칙,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실질 과세의 원칙, 조세 공평의 원칙, 환부 청구권

(가)로란 1 상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방식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단순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일반적인 법률상의 ‘상속’에 관한 설명이다. 예컨대,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부모[→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만을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상속에서 자식[→ 상속인]은 재산은 물론이고, 빚[→ 채무] 역시 물려받는다. 이렇게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는 ‘단순 승인’이 상속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2) 그러나 **피상속인이** 진 빚을 **상속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상속자인 자식이 피상속자인 부모의 재산과 빚을 무조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 예외 없이 일어난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모의 자식은 상속 제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민법은 부모의 사망 후 자식이 부모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구제할 방법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허용한다.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3)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

▶ 첫 번째 방식인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 곧 부모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을 아예 떠안을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4) ……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 채무의 변제를 승인하는 것이다.

▶ 이와 달리 두 번째 방식인 ‘한정 승인’은 상속 자체는 일어나되, 물려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갚도록 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적어도 상속에 의해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로란 2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의 변제 책임

1) 상속 포기를 하면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만, ……

▶ 그렇겠다. 재산도 채무도 물려받지 않는 만큼, 애초에 상속인으로 볼 이유가 없겠다.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되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

2) …… **한정 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되,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면서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 재산만큼으로 한정된다.

❶ **주목** 헷갈리지 말자.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한다’는 설명만 들으면 문단-1)의 단순 승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된다는 점**에 있다.

▶ 이렇게 이해해야겠다.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채무는 전부 물려받지만, 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직 물려받은 상속 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는 거다. 이 부분이 ‘단순 승인’과의 차이점이겠다.

3)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던 **이인**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재산인 **고유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 새로운 인물인 ‘상속 채권자’가 등장한다. 상속 채권자는 본래 부모[→ 피상속인]의 채권자였으나, 상속에 의해 자식[→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야 하는 자이다.

▶ 한마디로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는 상대방이 된다.

▶ 한정 승인에 의해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 재산만큼은 상속 채무를 변제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속 채권자는 그 상속 재산만큼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청구**→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❶ **주목** 이는 달리 말하면 상속 재산을 넘어서는 상속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는 만큼, 그에 대해서는 상속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4) 다만 한정 승인 시에도 채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이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 2)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상속 채무를 전부 갚을 의무가 없을 뿐이지 [→ 상속 재산만큼만 갚을 책임이 있을 뿐이지] 상속 채무를 갚을 만큼만 물려받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 가령 상속인 A에게 100만 원의 상속 재산이 있고, 300만 원의 상속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 채권자는 이때 100만 원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선의로** 혹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갚아야 할 책임도 없는데] 상속 채권자에게 나머지 200만 원도 본인의 고유 재산을 탈탈 털어서 갚는다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5) 한정 승인 제도는 **상속 채무의 규모를 잘 모르는 상속인**은 물론 **상속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과 별개로 상속인에게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는 이를 말한다.

❶ **맥락 짚기** 이번에는 ‘상속 채권자’에 이어 ‘상속인의 채권자’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 상속인 A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A가 자신의 상속 채무의 규모를 모르고 있다면 [→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A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가 이익인지, 상속이 이익인지가 판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 한정 승인을 청구함으로써, 상속 채무가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물려받을 만큼만 변제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A가 본래 채권자 B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빚[→ 채권자 C]도 물려받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B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되고 C는 ‘상속 채권자’가 되는 셈이다.

6) **상속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

▶ C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 내야만 하는 ‘상속 채무’를 상속 재산만큼 받아낼 수 있으므로 [→ 이만큼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한정 승인에 의해 본인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 7) ……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상속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 ➡ 반대로 B의 입장에서는 한정 승인에 의해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가 오직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고유 재산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한정 승인에 의해 본인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문단 3 한정 승인 제도의 진행 절차

- 1) 한정 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속려 기간 안에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 법원에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 한정 승인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잘 파악하자. 가장 먼저 '한정 승인 심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가정 법원에 대해 이루어진다.
- 2) 상속 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 한정 승인 심판 청구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가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말자.
- 3) 다만 청구 시에 재산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상식적인 내용이다. 재산 목록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줄임으로써 한정 승인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 상속 채무의 규모를 줄이려는 수작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못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겠지.
- 4) 한편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 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단순 승인을 했다면, 이는 상속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 고유 재산도 탈탈 털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 문단1-2)에서 언급한 대로 애초에 '한정 승인'의 법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상속인으로 하여금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이러한 경우를 '특별 한정 승인'이라 한다.

(가)문단 4 한정 승인의 효력 발생

- 1) 가정 법원은 한정 승인 심판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수리한다(=서류를 받아서 처리한다).

➡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문단3을 참고하면 되겠다.
- 2) 가정 법원이 그 실질적 내용을 조사할 권한은 없어서, 이 청구를 수리했다는 것은 요건을 구비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가정 법원이 심판 청구를 수리한 것은 상속자가 한정 승인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행정 기관이 인정했다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

📌 **핵심 짚기** 형식적 요건의 구비를 넘어서, 실제로 한정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좀 더 읽어 보자.
- 3) 한정 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 소송에서 결정된다.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했을 때 민사 법원에서 한정 승인의 항변[→ 한정 승인 심판 청구]이 인정되면 법원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이른바 '유보부 판결'을 내린다.

➡ 헷갈릴 부분들이 많다. 일단 이때의 '민사 소송'은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C가 A에게 상속 채무를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 이때 A가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가정 법원에 이미 한 상황이고, 이를 가정 법원이 수리하였다면, 민사 법원에서 해당 한정 승인 심판 청구가 효력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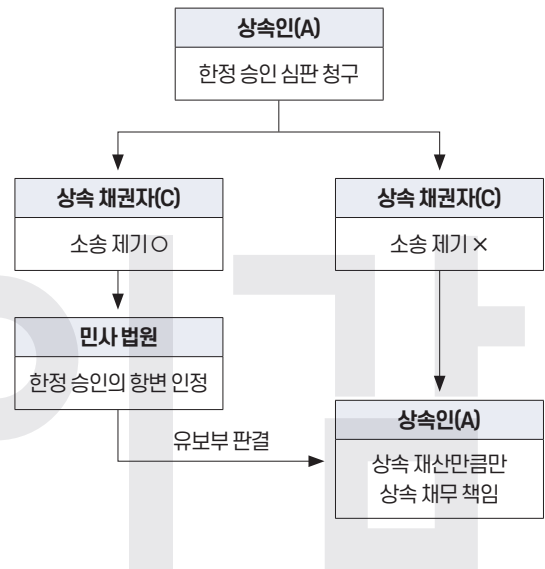
📌 **주목** 민사 법원은 '유보부 판결'을 내린다. 대략 이런 식의 판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A는 C에게 상속 채무 전부를 갚을 필요가 없다. 한정 승인이 유효한 만큼, 오직 상속 재산만큼에 대해서만 상속 채무를 갚아야 한다."

- 4) 소송이 없으면 상속인은 상속 채무의 청산 절차에 들어가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여 한정 승인의 절차를 마친다.

➡ C가 A에게 상속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A는 그냥 C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저는 한정 승인을 청구했으니, 상속 재산만큼만 당신에게 빚을 갚겠습니다."

➡ 이 경우에는 민사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C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정 승인 심판 청구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는지는 아예 문제 되지 않는다.

➡ 지금까지의 절차를 정리하면 이와 같겠다.



(나)문단 1 조세 법률주의와 그 적용

- 1)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 법률주의는 절대 군주가 신혼 시민 계급의 재산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이념으로서 정착된 것이다.

➡ '조세 법률주의'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조세는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 2)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제38조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제59조에 의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조세 법률주의가 명시되어 있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러한 조세 법률주의는 1)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날의 납세자들[→ 이전의 신혼 시민 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 3) 다만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종 논란이 빚어지곤 하는데, ……

➡ 그러나 법 조항에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해서 이러한 취지가 현실에서 항상 잘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나 보다.
- 4) …… 다음과 같이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취득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한정 승인을 한 상속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논란이 제시되려나 보다.

(L)문단 2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례

- 1) 피상속인의 사망을 목격하고 최대한의 숙려 기간을 거쳐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한 상속인 X가 가정 법원의 수리 후 상속 채무의 청산 절차를 따랐는데, ……

▶ **맥락 짚기** 조세 법률주의가 문제시되는 가상의 상황이 제시된다. 이 구절에는 (가)에서 설명한 한정 승인 제도 진행 절차가 압축되어 있다.

▶ ‘가정 법원의 수리 후 상속 채무의 청산 절차를 따랐다’는 설명을 고려했을 때 상속 채권자의 민사 소송 없이 한정 승인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가)의 문단4-4)].

- 2) …… 유일한 상속 재산인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되어 그 금액이 상속 채무보다 작았다고 하자.

▶ 한정 승인 제도에 따라 X는 상속 재산(→ 피상속인의 아파트)만큼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 이때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되었다는 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다. 가령 아파트가 예상보다 1억 원 낮게 매도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상속 채무 역시 1억 덜 갚아도 되기 때문이다.

▶ 결과적으로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나니, 상속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0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챙겨 두자.

- 3) 이 과정에서 X는 형식적이거나 부동산 등기를 거쳐 아파트를 취득한 후 매도한 셈이므로, 현행 법률상 과세 관청은 X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고 X는 고유 재산으로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문제는 이때 X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조세 법률주의’에도 매우 잘 부합한다. 이게 왜 문제일까? 상속 재산 때문에 발생한 취득세인데, 정작 상속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0이기 때문이다.

(L)문단 3 사례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

- 1)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

▶ 위의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첫 번째 입장이다.

- 2) …… 재화가 이전(移轉)됐다는 사실로부터 세금을 낼 능력인 **담세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채무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는 X에게 담세력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상속에 의해 재화가 이전되었다면,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상속으로부터 이익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상속받았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지!’

- 3) **2006년 헌법 재판소** 역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든(→ 상속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0이든) 초과하지 않든, 취득세는 똑같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 4) 형식적이지만 등기로 명의를 일시적으로 얻었다면 **사실상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직후에 매도하였다) 고유 재산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위의 상황에서 X는 상속 재산으로 전부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만큼, 상속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0이 된다. 즉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 재산이 아닌 고유 재산으로 부담해야만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부당하지 않다.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는 문단1-2)에서 언급한 대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면 부당해 보일 수

도 있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재화의 이전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일이라는 얘기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납세자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 5) 반면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

▶ 문단2)의 사례를 해석하는 두 번째 입장이다. 앞서 설명한 입장의 ‘형식적’이라는 표현과 대비되는 ‘실질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 6) …… 고유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한정 승인의 법리상 상속인이 고유 재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는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와 달리 상속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으려는 한정 승인의 법리를 우선한다.

- 7)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사실상 없어서 실질적 담세력이 없으므로 조세의 또 다른 원칙인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속 포기나 비교할 때 한정 승인을 한 경우가 불리할 수 있어서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의 입장은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의 입장을 이렇게 비판할 거다. “X가 상속 재산을 형식적으로라도 취득한 것은 맞지만(→ [형식적으로] 담세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득하지 않았다(→ 실질적 담세력은 없다.)). 그럼에도 취득세를 무작정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주목** 이는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와 달리 납세자의 실제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L)문단 4 조세 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주장들

- 1) 일각에서는 당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 중 상속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액만큼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환부청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문단2)의 문제 상황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다. 취득세 자체는 부과되,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환부 청구권’을 인정하는 얘기다.

▶ 가령 X에게 취득세가 100만 원 부과되었다면,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다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만약에 문단2)의 사례와 달리,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상속 재산-상속 채무) 10만 원이 남았다면, 이 경우에는 9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 또는 상속 관련 세금이 상속 채무에 포함되도록 하여 한정 승인 시에 상속 재산으로 이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두 번째 해결책은 ‘취득세’와 같이 상속과 관련한 세금을 상속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상속 채무에 포함된다면 이는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 재산에 의해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X는 적어도 실질적으로 취득세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어진다.

▶ 이는 네 번째 문제 <보기>의 상황이기도 하니, <보기> 분석에서 좀 더 살펴보자.

<보기>문단 1

상속인 Y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2개월 뒤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숙려 기간을 거쳐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은 아파트 한 채였고 상속 채무는 이보다 더 컸다. 상속 채권자가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하여 민사 법원에서 Y의 한정 승인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Y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거쳐 이를 매각한 후 상속 채무들을 처리할 것이다.

▶ 편의상 이때 Y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에 매각되었고, 상속 채무는 총 20억 원이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상속 채권자를 Z라 하자.

<보기>문단 2 상속 관련 세금이 상속 채무에 포함되도록 하는 상황

단, [A]의 경우와 달리 장례 비용이나 유언의 집행 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을 우선 변제되는 상속 채무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민법의 조항이 개정되어, 한정 승인 심판 청구가 가정 법원에서 수리된 경우에 한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가 1억 원이라고 하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상속 재산	10억 원
상속 채무	20억 원 + 1억 원(← 취득세)

▶ 이때 Y의 한정 승인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Y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10억 원만큼만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때 취득세가 우선 변제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상속 채권자 Z는 20억 원 중에서 9억 원만큼만 받아 낼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Y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고유 재산으로 낼 필요가 없어 지는 셈이다.



[10~13] 예술

인상주의와 네덜란드 장르화

지문 평가

서양 회화에 대한 전통적 인식의 변화를 담고 있는 인상주의와 장르화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지문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 무난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상주의와 장르화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읽어 보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회화 - 인상주의, 장르화

관념성, 순간성, 인상주의, 장르화, 모네, 「루앙 성당」, 베르메르, 「연애편지」, 사실주의적 경향

문단 1 장면의 순간성을 표현하려는 경향

1) 전통적으로 서양 회화는 역사, 신화, 종교와 같은 소재로 교훈적 상징을 제시하는 등 가치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었다.

▶ 서양 회화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대로 읽어 주자.

2) 설령 자연을 재현할 때조차 복잡하고 불완전한 모습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구도와 원근법으로 화폭에 이상적인 자연을 구현하려 하였다.

▶ 이렇게 회화를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은 캔버스에 재현된 자연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들이 전달하는 가치가 이상적인 만큼, 자연의 모습 역시 이상적으로 재현된 것이다. 다음의 그림에서 나무, 바위, 구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잡힐 거다.



3) 이 같은 고전적 화풍의 관념성을 비판하고 시각 경험에 충실하게 [→ 있는 그대로] 순간성을 묘사하는 최초의 회화 사조로 흔히 19세기 인상주의가 거론된다.

▶ 교훈적 가치 따위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통적 서양 회화의 속성을 '관념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어 주자. 이들은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에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형상으로 재현하였다.

▶ 그에 반해 '순간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되는 '인상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다. 여기서 말하는 순간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4) 그런데 장면의 순간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장르화에서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장르화란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묘사하는 회화를 뜻한다.

▶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자그마치 2세기나 전에 이미 장르화가 먼저 '순간성'을 표현했다.

❶ **맥락 짚기** 인상주의와 장르화는 장면의 순간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니 앞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읽어야겠다.

로단 2 인상주의의 특징과 네덜란드 장르화의 등장 배경

- 1) 인상주의 화가 **모네**가 「루앙 성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상주의는 예배당과 같은 대상의 형태를 동일하게 그리되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의 인상을 각각 화폭에 담았다.

▶ 이런 건 백문(百問)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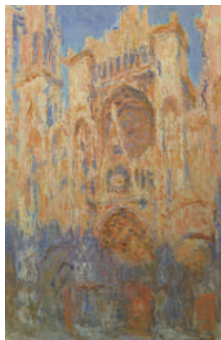


모네, 「루앙 성당」 연작

▶ 모네는 동일한 성당을 동일한 구도에서 여러 차례 표현하였는데, 그때마다 묘사된 방식이 다르다. 즉 모네는 그때그때 빛에 의해 달라지는 시시각각의 루앙 성당을 표현한 거다.

- 2)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보여 주기 위한 세밀한 묘사가 줄어든 대신 체험했던 특정 순간의 색조와 인상, 분위기를 거친 붓 터치로 전한 것이다.

▶ 루앙 성당 그림 중 하나를 크게 보자. 성당 자체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빛이 성당에 비치는 그 순간의 밝은 색조와 인상, 분위기가 거친 붓 터치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❶ **주목** 인상주의가 내세운 '순간성'이란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희생하는 대신, 사물이 빛에 비치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 3) 종교 전쟁 이후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고 상업의 발달로 현실의 삶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네덜란드에서 태동한 장르화는, 일상의 순간을 그렸음에도 인상주의와는 달랐다.

▶ 네덜란드에서 장르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 정치적 자유의 확보, 상업의 발달로 현실의 삶이 중시되면서 그림에도 삶의 한 단편인 일상의 순간을 담은 것이다.

▶ 인상주의의 순간성이 '빛에 의한 순간성'이라면 네덜란드의 장르화의 순간성은 '일상의 순간성'을 가리키나 보다. 그 차이점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장르화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 공간, 일상의 소품들과 함께 담겨 있는데, 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순간의 장면을 포착한 사진과 같았다.

▶ 일상생활의 한순간을 담아낸다는 거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느낌이 올 거다.



- 5) 장르화는 당시의 삶을 이루는 일상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회화의 소재로서 향후 영원히 남을 만큼 [→ 항구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장르화는 현실의 삶을 중시하는 당시의 분위기에 맞게, 화폭에 그릴 정도로 일상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❶ **맥락 짚기** 세 번째 문제 <보기>에서 현대성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이 대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로단 3 인상주의와 장르화의 기법 차이

- 1) 장르화와 인상주의 회화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걸치고 있는 시간을 묘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된 기법의 측면에서 상이했다.

▶ 장르화나 인상주의 회화나 대상 자체가 아닌 그 시간을 묘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즉 그 대상의 순간을 표현하려 한 거다. 다만 기법상 차이점이 있는데……

- 2) 순간을 담기 위해 인상주의가 야외의 빛에 주목했다면, ……

▶ 인상주의가 문단2-1)에서 설명한 대로 '빛에 의한 순간성'을 표현했다면……

- 3) …… 장르화는 시선을 분산하는 구도를 활용하였다. 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특정 메시지를 전하려 하기보다 화면의 여러 지점에 감상자의 시선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한 것이다.

▶ 장르화는 감상자의 시선을 분산하는 구도를 활용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일상의 순간성'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가.

- 4) **베르메르**의 작품 「연애편지」를 보면, 열린 문 너머로 방 안의 인물들이 보이지만 우선 커튼이나 생활 잡화들이 전경에 배치되어 시선이 주목되도록 한다. 원근감을 조성하는 바닥 무늬에 의해 감상자의 시선은 방 안에 앉아 있는 여인에게 이끌리지만, 곧 그 여인의 시선을 따라 벽에 걸린 액자 등으로 시선이 다시 분산된다.

▶ 시선이 어떻게 분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베르메르, 「연애편지」

- 5) 장르화의 이러한 기법은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교훈을 얻도록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서양 회화의 목표], 우연히 포착된 가치 있는 대상을 통해 일상을 체험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문단 4 장르화와 달리 예술 사조가 된 인상주의

- 1) 인상주의는 형태를 불분명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그 등장 초기에 감상자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
 ➡ 문단2-1)의 모네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루앙 성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형태가 불분명하다. 이 부분 때문에 '인상주의'는 등장 초기에 비난을 받았지만.....
- 2)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당시의 모습, 즉 명확한 방향성 없이 덧없이 이행하는 시대의 속성에 부합하는 예술 사조로 자리매김하였다.
 ➡ 오히려 형태를 불분명하게 그린 그림이 당대의 현실을 잘 표현한 덕분에 하나의 예술 사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 3) 이와 달리 장르화는 네덜란드의 특수한 시대적 여건에서 탄생한 탓에 유럽 전체의 예술 사조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 반면 장르화는 문단2-3)의 설명대로 오히려 특수한 시대적 여건에서 탄생한 만큼,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가지는 못했단다.
- 4) 다만 곤궁한 삶을 묘사하여 메시지를 전하려는 보통의 사실주의적 경향과 거리를 두면서도, 세밀한 사실적 묘사로 일상을 옮겨 놓은 듯한 효과를 통해 회화에서 일상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토양이 되었다.
 ➡ 그럼에도 장르화에는 그 자체의 의의가 있다는 얘기가.
 ➡ 마지막으로 인상주의가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은 것과 달리, 장르화는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는 점 정도는 챙겨 갈 수 있도록 하자.
 ⚠ 주목 다만, 장르화는 사실적 묘사를 중시 여겼지만 특정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실주의적 경향과는 달랐다.

[14~17] 과학

일산화 질소의 항균 작용

지문 평가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들은 낱설 수 있지만 지문의 구조는 단순하다. 대식 세포와 관련된 작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산화 질소의 '직접 항균 작용'과 '간접 항균 작용'을 구분해 각각의 과정을 개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일산화 질소, 병원체

일산화 질소, 병원체, 항균 작용, 반응성, 대식 세포, 리소좀 효소, 탐식 작용, 산화 질소 합성 효소, L-아르기닌, 보조 T세포, 과산화 수소, 산화 분출, 활성 질소종, 산소 분자, 초과산화 이온, 직접 항균 작용, 단세포 생물, 핵 단백질, 핵, 포르피린, 철 아연, 전자 전달계, 사이토크롬, 간접 항균 작용, DNA, 염기, 니트로소화 반응, 탈아미노화 반응

문단 1 항균 작용을 수행하는 일산화 질소

- 1) 산소 원자 하나와 질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일산화 질소'는 기체 상태에서 인간의 호흡기나 안구 등과 접촉할 때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물질로 작용하곤 한다.
 ➡ 체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일산화 질소'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지만.....
- 2) 이러한 일산화 질소가 체내에서 생성되기도 하는데, 체내에서의 일산화 질소는 신경 신호 전달이나 혈관 확장 등의 생리적 기능은 물론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수행한다.
 ➡ 체내에서 생성된 '일산화 질소'는 이렇게나 유용하게 쓰인단다.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체외	유해 물질	호흡기나 안구 등과 접촉 시 세포 손상시킴
체내	생리적 기능	신경 신호 전달, 혈관 확장
	항균 작용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등] 제거

- 3) 일산화 질소가 항균 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하거나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반응성은 홀수 개의 전자를 지니서 주변 물질로부터 전자를 하나 얻거나 전자 하나를 주변 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짝수 개의 전자만을 지니므로써]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경향을 말한다.
 ➡ 아무래도 '높은 반응성'이 일산화 질소 항균 작용의 핵심 원인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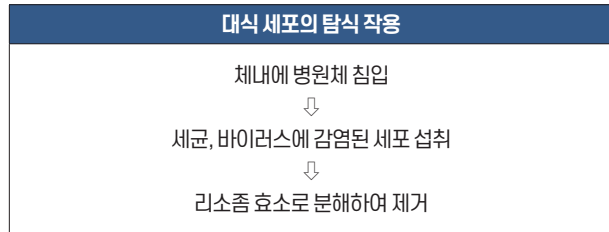
문단 2 일산화 질소의 생성과 항균 작용의 종류

- 1) 항균 작용을 수행하는 일산화 질소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 세포에서 생성된다.
 ➡ 대식 세포는 혈액 안에 존재하고, 일산화 질소는 그 대식 세포 안에서 생성되는 거다.
- 2) 체내에 병원체가 침입하면 대식 세포는 세균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

스에 감염된 세포를 섭취한 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리소좀 효소**로 이를 분해하여 제거하는 **탐식 작용**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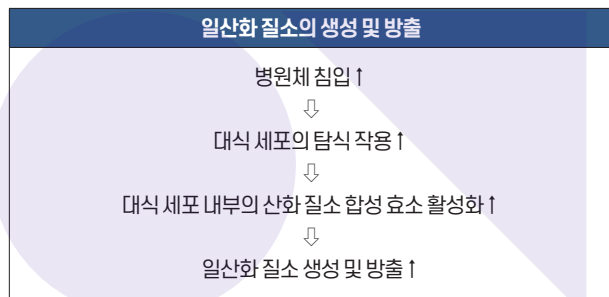
- ▶ 탐식 작용은 '대식 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분해하여 제거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 ▶ 이때 세균의 경우 대식 세포에 의해 직접 분해되며, 바이러스의 경우 그에 감염된 세포 자체가 분해된다.

참고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직접 분해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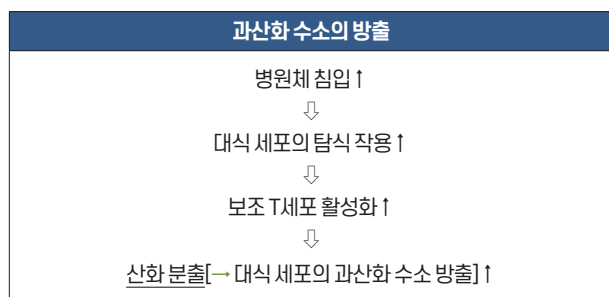
3) 이 과정에서 대식 세포 내부에 존재하면서 탐식 작용에 비례하여 활성화되는 **산화 질소 합성 효소**의 작용에 의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아르기닌**으로부터 일산화 질소가 생성되어 방출된다.

- ▶ 중요한 건 '산화 질소 합성 효소'의 활성화 정도는 '탐식 작용'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즉 외부에서 병원체가 많이 침입해서 탐식 작용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산화 질소 합성 효소도 많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산화 질소가 생성되어 방출된다.



4) 이와 더불어 대식 세포의 탐식 작용에 비례하여 활성화되는 **보조 T 세포**의 작용에 의해, 대식 세포는 **과산화 수소**를 방출하는 **산화 분출**을 일으킨다.

- ▶ 탐식 작용은 '일산화 질소의 생성'에도 기여하지만 '과산화 수소의 산화 분출'에도 기여한다. 인과 관계를 잘 정리해 두자.



5) 일산화 질소는 직접 항균 작용을 수행하거나, ……

- ▶ **맥락 짚기** 생성 및 방출된 '일산화 질소'는 비로소 항균 작용을 수행하는데, 그게 한 가지 방식인 것은 아닌가 보다.
- ▶ '일산화 질소'가 단독 작용하는 '직접 항균 작용'이 있고……

6) …… **활성 질소종**의 형태로 과산화 수소와 함께 간접 항균 작용을 수행한다. **활성 질소종**이란 과산화 수소가 분해될 때 떨어져 나오는 **산소 분자**, 혹은 산소 분자보다 전자를 2개 더 가지는 **초과산화 이온**과 일산화 질소가 결합된 물질이다.

- ▶ **활성 질소종**[→ 일산화 질소 + 산소 분자, 또는 일산화 질소 + 초과산화 이온]과 과산화 수소가 함께 작용하는 '간접 항균 작용'도 있다.
- ▶ 이때 활성 질소종을 이루는 '산소 분자'와 '초과산화 이온'은 과산화 수소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4)에서 설명한 과산화 수소 산화 분출의 정도에 비례하겠다.
- ▶ **맥락 짚기** 이어지는 글에서는 각각 '직접 항균 작용'과 '간접 항균 작용'이 수행되는 과정이 설명되겠다.

문단 3 직접 항균 작용

1) 일산화 질소의 **직접 항균 작용**은 주로 세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 '직접 항균 작용'은 병원체 중에서 '세균'을 대상으로 한다.

2)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세포 생물**인 세균은 자기 내부의 다양한 단백질들의 작용에 의해 생명을 유지한다.

- ▶ 세균이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여러 단백질들의 작용에 의해 생명을 유지한다면, '직접 항균 작용'은 세균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당 단백질들의 작용을 차단하게 될 것 같다.

3) 특히 세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헴 단백질**은 헴에 특정 단백질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헴**은 **포르피린**이라는 고리 모양의 화합물과 그 고리의 중앙에 위치한 **철 양이온** 등으로 구성되며, ……

- ▶ 특히 '헴 단백질'→ **포르피린** + **철 양이온**이 세균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4) …… 헴 단백질은 내부의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함으로써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균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구조물인 **전자 전달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이토크롬**은 대표적인 헴 단백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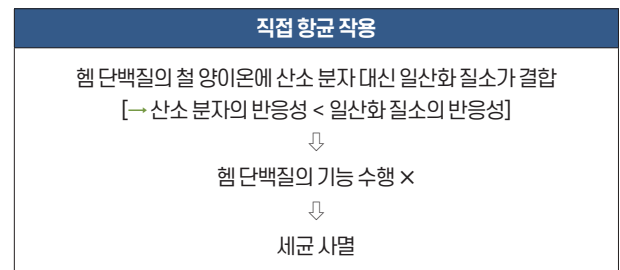
- ▶ **주목** 헴 단백질이 세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려면 포르피린 화합물의 중앙에 위치한 철 양이온에 산소 분자가 결합해야만 한다.

- ▶ '전자 전달계'를 이룬다는 '사이토크롬'도 예시로 잘 행쳐 두자.

5) 그런데 철 양이온과의 반응성은 산소 분자보다 일산화 질소가 더 크기 때문에 헴 단백질 주변에 산소 분자와 일산화 질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일산화 질소가 헴 단백질의 철 양이온과 결합한다.

- ▶ 헴 단백질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해야만 한다. 그런데 일산화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문단1~3] 산소 분자 대신에 철 양이온과 결합해 버린다.
- ▶ 헴 단백질이 세균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3)의 설명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세균의 생존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겠다.

6) 그 결과 산소 분자와의 결합이 억제된 사이토크롬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균이 사멸한다.



- ▶ **맥락 짚기** 다음 문단에서는 '간접 항균 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겠다.

문단 4 간접 항균 작용

1) 일산화 질소의 **간접 항균 작용**은 직접 항균 작용과 동시에 이루어

지지만, 과산화 수소와의 공동 작용에 의해 세균뿐 아니라 헴 단백질을 가지지 않는 병원체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 일산화 질소는 문단2의 설명대로 직접 항균 작용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간접 항균 작용에 참여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에는 활성 질소종의 형태로 과산화 수소와 함께 작용하게 된단다.

➡ 왜 간접 항균 작용도 필요한지는 자명하다. 직접 항균 작용은 헴 단백질에 작용하는 것인 만큼, 헴 단백질이 없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 물론 '간접 항균 작용'도 세균을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2) 세균과 바이러스는 그 내부에 유전 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는데, DNA는 **염기**들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병원체의 내부에는 공히 DNA가 들어 있는데, 이는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아하니 간접 항균 작용은 이러한 염기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다.

3) 과산화 수소와 활성 질소종이 병원체의 DNA와 접촉하면 과산화 수소의 작용에 의해 염기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가닥이 절단된다.

➡ 먼저 과산화 수소에 의해 염기들의 결합이 끊어진다. 그다음 활성 질소종이 간접 항균 작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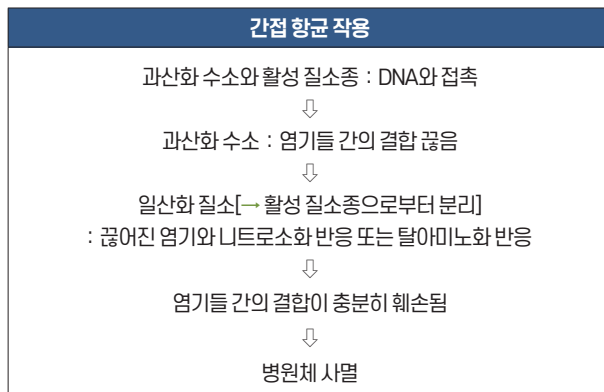
4) 그러면 활성 질소종을 구성하던 일산화 질소는 활성 질소종으로부터 분리되어 끊어진 염기로 이동한 뒤 해당 염기와 결합하는 **니트로소화 반응**이나 염기로부터 그 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기를 분리**시키는 **탈아미노화 반응**을 일으킨다.

➡ 활성 질소종은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산화 질소가 분리되어 '니트로소화 반응'과 '탈아미노화 반응'을 일으킨단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5) 이를 통해 염기들 간의 결합이 다시 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면 DNA의 기능이 상실되며, 그로 인해 병원체에는 스스로 사멸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니트로소화 반응과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해 염기들 간의 결합이 많이 훼손된다. 중요한 건 다시 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다는 점이다.

➡ 이렇게 이해해야겠다. 과산화 수소에 의해 염기들 간의 결합이 끊어졌을 때에는 아직 복구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즉 병원체가 스스로 사멸하는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산화 질소에 의해 염기들 간의 결합이 더 훼손되었을 때에는 복구의 여지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다.



[18~21] 고전시가

(나) 「금루사」 민우룡

작품 평가

작가가 실제로 인연을 맺은 애월이라는 기생을 향한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애정 가사이다. 다양한 비유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애월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점이나 사랑의 감정을 과감하고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또한 전생에 선계의 인물이었던 남녀 주인공이 죄를 지어 지상에 유배 왔다는 적당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참고] 18세기 말에 향촌 사족인 민우룡은 제주 통판으로 부임하는 사람을 따라 제주에 갔다가 애월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된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인 것이다.

어와 저 낭자(娘子)야 내 말씀 들어 보소

➡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가 '낭자'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전개된다. 화자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나오는 거다.

속세에 묻혔은들 전생(前身) 인연 잊을쏘나

➡ '전생 인연'을 거론한 것은 현생의 만남이 지닌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낙포 선녀(洛浦仙女) 보려 하면 전생(前身)의 너 아닌가

➡ 낭자의 전생이 '낙포 선녀'였다는 말로, 낭자를 최고로 추켜세우는 표현이다.

[참고] '낙포 선녀'는 낙수(洛水)의 여신인 복비(宓妃)를 가리키는데, 중국 전설 속 임금인 복희씨의 딸로 낙수에 빠져 수신(水神)이 되었다고 한다.

남관(南關, 험한 고개 남쪽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경북 문경 지역을 이름)의 백면서생(白面書生, 한갓 글만 읽고 세상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선객(仙客, 신선)인 줄 뉘 알리오

➡ '남관' 출신으로 '백면서생'인 화자 자신이 '선객'이라는 말인데, 결국 낭자와 화자가 모두 전생에 천상계의 존재였다는 뜻이다.

요지연(瑤池宴, 신선 세계의 복숭아가 맺힐 때 열린다는 천상계의 연회)의 복숭아 흠친 이는 너이건만

주고받음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 왔네

➡ 낭자와 화자가 선계에서 죄를 짓고 속세에 귀양 온 선녀와 신선이라는 말이다. 이는 두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인연이므로 현세에서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맺어져야 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넓디넓은 천하에 두 사람이 나뉘지니

➡ 각자의 출신지가 다르다는 말이다.

벽해수(碧海, 짙푸른 바다의 물) 양양(= 바다가 한없이 넓음)하여 은하수가 되어 있다

➡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낭자는 제주에, 화자는 육지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직녀와 견우가 은하수에 가로막혀 만나지 못하는 사정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너도 나를 보려 하면 험한 산이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영주산(瀛洲山,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의 하나로, 한라산의 별칭)이 아득하다

➡ 서로 만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 깨나 원하더니

옥황(玉皇)이 감동한지 선관(仙官)이 두둔한지

▶ '옥황'과 '선관'을 거론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하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태을선(太乙仙, 천신인 태을진인)의 연잎 배에 바람 돛을 높이 달아
자라 수염에 배를 매고 영주산에 들어오니

▶ 자신이 탄 배를 '연잎 배'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제주도에 이르는
과정 또한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仙界)의 경치로다

▶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계의 경치'라는 말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 '인연'은 남자와의 첫 만남을 가리킨다.

부용안 유엽미(芙蓉顏柳葉眉, 연꽃 같은 얼굴과 버들잎 같은 눈썹)는 전
생과 한가지(=마찬가지, 즉 같다는 말)요

▶ '부용안'과 '유엽미'의 비유에 더해, '전생과 한가지'라는 표현을 써서 남자
를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그리고 있다.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네

▶ 남자가 속세에서 자람에도, 속세를 벗어난 듯이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감탄한 말이다.

정원루(定遠樓) 밝은 달에 월모사(月姥絲, 월하노인이 남녀의 인연을 맺
어 준다는 실)를 자아내어

▶ 월하노인이 화자 자신과 남자 사이를 '월모사'라는 실로 이어 주었다고 상
상하면서 운명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는 한편, 둘의 만남이 하늘이 정해 준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 참고 '정원루'는 제주 읍성에 있는 누각이다.

피꼬리 제비 우는 봄날 초대 운우(楚臺雲雨, 초나라 회왕이 무산신녀와
사랑을 나눈 일을 말함) 다정하니

→ 피꼬리, 제비 우는 봄날에 꿈같던 사랑 다정하니

▶ 봄날에 꿈같이 맺어진 인연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옛 전설을 인용해 부각
하고 있다.

인간(人間)의 사월 팔일 천상(天上)의 칠석이로다

→ 인간 세상의 사월 팔일이 천상의 칠월 칠석이로다.

▶ '칠석'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임을 생각하면, '사월 팔일'은 화자가 남자
를 만나 인연을 맺은 날이겠다.

(중략)

산과 바다에 맹세하고 천정 가연(天定佳緣,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믿었더니

→ [서로의 사랑을 변치 말자고] 산과 바다를 두고 굳게 맹세하고, 이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믿었는데

▶ 남자가 사랑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음을 환기한다.

갓 사귀 정 미흡(=아직 흡족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음)한데 중도(=오
가는 길의 중간) 변심(變心) 무슨 일고

본성이 제멋대로라 노류장화(路柳牆花,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 기생
을 이르는 말) 도로 되니

→ [남자의] 본성이 제멋대로라서 [남자가] 도로 기생이 되니

▶ '본성'을 거론하며 남자의 방종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다. 화자는 남자
가 자기만 사랑하길 바랐으나, 다시 기생이 되어 다른 남자들에게도 마음을
주는 상황이 불만인 것이겠다.

맹세도 뜬구름이요 사랑도 춘몽(春夢)이라

▶ '뜬구름'이나 '춘몽'이라는 표현은 '맹세'도 '사랑'도 모두 덧없음을 나타낸
비유이다. 남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기는 화자의 실망감이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성중(城中) 한 걸음 땅에 삼천 리 약수(弱水) 망망(=넓고 멀)하니

→ 성안에서 [오가는 데] 한 걸음이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마치 삼
천 리 약수가 가로놓인 것처럼 [서로의 거리가] 넓고 멀니

▶ 화자와 남자가 성안의 서로 가까운 곳에서 지내면서도 약수가 사이에 가로
막힌 것처럼 만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고운 눈썹 가는 허리 뉘게 뉘게 보여 주며

→ [남자의] 고운 눈썹, 가는 허리를 누구에게 보여 주며

▶ '고운 눈썹', '가는 허리'는 남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금비녀 옥가락지 어디어디 노니는고

→ [금비녀 꽃고 옥가락지 낀 남자는] 어디어디 노니는고?

▶ '금비녀', '옥가락지'는 기생 신분인 남자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방종하
게 행동하는 남자의 행실을 그리며 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조(靑鳥, 반기운 소식을 전하는 푸른 새)는 아니 오고 두견이 슬피 울 제

▶ '청조'는 기다리는 임의 소식이 오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운 화자의 마음을
환기하고 있다. '두견'은 흔히 피 울음을 토하는 새로 여겨져 왔는데, 화자의
한스러운 심정을 의미한다.

여관(旅館) 한등(寒燈, 쓸쓸히 비치는 등불)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이 불을 뉘 끄리오 님 아니면 할 길 없고

▶ 임이 그리워 마음에 일어나는 불길을 임밖에는 끌 사람이 없다는, 즉 임만
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이 병을 뉘 고치리 님이라야 편작(扁鵲,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명의)이라

▶ 임이 그리워 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임밖에 없다는 말이다.

맺힌 마음 외사랑은 나는 점점 깊건마는

무심할손 이 님이야 허랑하고 박정하다

▶ '외사랑'이 깊어 가는 화자의 마음과 '무심'한 임의 마음이 대조를 이루며,
화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 간다. 자신을 버린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드러
나 있다.

[31~34] 현대시

(가) 「길」 윤동주

작품 평가

어려운 시어가 없어서 언뜻 보기에 평이한 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 보면 만만한 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한두 번 정도 다시 읽으며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을 듯하다.

제 1연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화자의 탐색]
길에 나아갑니다.
➡ 잃어버리는 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더듬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탐색의 자세는 시 전체로 확장된다.

제 2연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을 끼고 갑니다.
➡ 화자가 나선 길은 돌담을 끼고 있는 길이다. 길을 끼고 돌담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연달아 있는 돌담이 길 한쪽을 막고 있는 상황이니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 답답함이 느껴진다.
➡ 돌담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화자가 그 돌담을 따라 계속 '연달아'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화자가 걷고 있는 것은 제1연에서 보았듯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다.

제 3연

담은 쇠문[→ 차갑고 무서운 느낌의 소재]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 끝없이 연달아 있는 돌담의 막막함에 더해 차갑고 무거운 쇠문은 굳게 닫혀 있다. 화자가 돌담을 지나 담 저쪽으로 갈 방법은 없을 것만 같다.
➡ 돌담이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했으니, 돌담의 무겁고 답답하며 어두운 느낌이 화자가 걸어가는 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제 4연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통했습니다.
➡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시간 표현이 길이 결부되어 있다. 이 끝나지 않는 길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못하는 화자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을 걷는 화자의 태도를 함께 환기한다.

제 5연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무언가를 찾는 일이 막막하고 힘겨워서]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길은 끝이 없어 보이고 자신의 탐색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좌

절감을 느낀 화자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머리 위에서 화자를 내려다보는 하늘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워 주는 윤리적 공간이자 숭고한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이런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서 좌절을 느낀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제 6연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 삭막한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참된 자아] 남아 있는 까닭이고,
➡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돌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고, 참된 자아인 '나'를 찾기 위해 삭막한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다. '나'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이지만 그만두지는 않겠다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 길을 따라 이어지는 돌담은 화자와 '담 저쪽'의 '나'를 단절시키고, 자아의 분열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다.

제 7연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 담 저편에 있는 '나']을 찾는 까닭입니다.
➡ 잃어버린 '나'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는, 이제 삶의 목적 자체로 나타난다. 참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며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
➡ 이 시에 표현되어 있는 '길'은 실제의 길이나 현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내면 공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내면적 탐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한 시라고 볼 수 있다.